

영어 가부 의문문 초점 발화와 지각

The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Focus in English Yes-No Questions

전 윤 실* · 오 세 풍** · 김 기 호**

Yoon-Shil Jeon · Sei-Poong Oh · Kee-Ho Kim

ABSTRACT

In English, a focused word with new information receives a pitch accent. This paper examines how English native speakers and Korean speakers produce and perceive focus in English yes-no questions. The production experiments show that native speakers realize an appropriate intonation of yes-no questions, in which a focused word has a low pitch accent followed by a high phrasal accent and a high boundary tone. However, Korean speakers usually give a high tone to a focused word. In a like manner, the perception experiments show that English native speakers judge a word with a low tone to be focused, while Korean speakers have difficulty in comprehending a focused word realized as a low tone. And it is found that Korean speakers tend to perceive low tones on sentence initial and final focused words better than those on sentence medial focused words, and they often perceive a word with a relatively high fundamental frequency or a sharp rise of fundamental frequency as a focused word. This paper shows that Korean speakers have trouble to produce and perceive an appropriate tonal pattern of a focused yes-no question, and that can cause confusion in a conversation with native speakers.

Keywords: Focus, High tone, Low tone, Yes-No question, Intonation

1. 서 론

담화에서 한 문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갖는다. (1)의 대화문에서 질문 (1a)에 대한 대답인 (1b)에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밑줄 친 단어 'John'이다.

(1) a. Who likes Mary?

b. John likes Mary.

이처럼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요소를 일반적으로 '초점'이라 부른다(최재용 · 이민행, 1999). 영어

* 인천대학교 어학원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장에서 어떤 한 단어에만 협의의 초점이 부여될 때 그 단어의 강세 음절은 피치 액센트를 갖는다. 따라서 위의 (1b)는 발화될 때 (2)와 같이 초점 단어인 'John'에 H* 피치 액센트가 부여된다(이하 예문의 대문자는 피치 액센트가 부여된 단어를 표시함).

(2) JOHN likes Mary.

H* L-L%

Rooth(1996)는 초점을 운율적인 돌들림으로 기술하였다. 영어 발화에서 운율적인 돌들림은 고성조뿐만 아니라 저 성조로도 실현된다. 평서문의 초점 단어에는 H* 또는 L+H*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구 액센트(phrasal accent) L-와 경계 성조(boundary tone) L%가 뒤따른다. 그런데 가부(Yes-No) 의문문의 경우는 초점 단어에 L*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구 액센트 H-와 경계 성조 H%가 뒤따른다.¹⁾

가부 의문문에서의 초점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 의문문이 선행하는 발화 예를 살펴보자. (3)의 의문사 의문문의 뒤에 오는 가부 의문문은 선행하는 의문사 의문문에 의해 'John'에 초점을 가진다.

(3) Who likes Mary? Does John like Mary?

(3)의 가부 의문문은 다음 (4)와 같이 초점 단어인 'John'에 L* 피치 액센트가 부여된 억양으로 발화된다.

(4) Does JOHN like Mary?

L* H-H%

(4)의 초점 가부 의문문은 (3)의 첫 문장인 정보를 구하는 의문사 의문문과 발화의 목적이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Kiefer, 1980 참조). (4)의 초점 가부 의문문에 대해 부정으로 답하는 경우에 단순히 'No.'라고 답하면 질문을 한 사람에게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대답이 된다. 질문자는 'Mary를 좋아하는 사람이 John인지'를 물었으나 그 의도는 결국 '누가 Mary를 좋아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의 대답을 할 경우 John이 아니라면 누가 Mary를 좋아하는지를 알려주어야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4)의 초점 가부 의문문에 대해 부정으로 답할 경우 (5)와 같은 대답이 가능하다.

(5) No, Peter likes Mary.

1) 한국어의 초점은 평서문에서나 의문문에서 모두 높은 정점 기본 주파수로 실현된다. 초점 단어는 길이가 길고 기본 주파수가 높고 후속 어구들을 한 액센트구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김미란(2000), 최재웅·전윤실·장윤·박순복·김기호(1999), 전선아·오미라(1996)).

마찬가지로 다음 (6a)에 대해서 부정으로 대답하는 경우 (6b)의 대답이, (6c)에 대해서는 (6d)의 대답이 가능하다.

- (6) a. Does John like MARY?
 b. No, he likes Jane.
 c. Does John LIKE Mary?
 d. No, John hates Mary.

(4)-(6)의 예는 초점 단어에 L* 피치액센트가 부여되는 초점 가부 의문문에 대해 담화 맥락에 맞는 합당한 대답은 그 질문의 초점에 근거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억양 정보가 없는 경우에 (7)의 가부 의문문에 대해 (7a), (7b), (7c)의 대답이 모두 가능할 수 있다.

- (7) Does John like Mary?
 a. No, Peter likes Mary.
 b. No, he likes Jane.
 c. No, John hates Mary.

그러나 억양 정보가 제공되어 'John'에 초점이 부여된 경우에는 (8a)가 올바른 대답이며 (8b)와 (8c)는 부자연스러운 대답이 된다.²⁾

- (8) Does JOHN like Mary?
 a. No, Peter likes Mary.
 #b. No, he likes Jane.
 #c. No, John hates Mary.

대답을 하는 사람은 질문을 한 사람이 기대하는 대답 즉 질문의 초점을 인식하고 합당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대화의 규칙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화자가 영어를 발화할 때에 이러한 의문문의 초점을 잘 구현하는지 그리고 그 발화를 의도한 대로 영어 원어민 화자가 지각하는지 살펴보겠다. 또 한국인 화자가 영어 원어민 화자의 질문의 초점을 잘 지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제와 초점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Who likes Mary? Does JOHN like Mary?'의 두 의문문은 공통된 전제인 'Someone likes Mary.'를 가진다. 대답 중에서 (8a)의 'No, Peter likes Mary.'는 질문과 동일한 전제를 가지나 (8b)와 (8c)는 의문문과 동일한 전제를 갖지 않는다. 선행 발화와 공유된 전제를 갖는 것이 담화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자연스런 담화라고 할 때(Chomsky 1971) 이들 (8b)와 (8c)는 질문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응답이 된다.

2. 발화 실험

초점 가부 의문문이 발화될 때 그 초점 단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억양으로 실현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발화 실험을 하고 그 억양 유형들을 분석하고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2.1 실험 방법

실험 자료는 다음 (9)와 같이 동일한 가부 의문문에서 초점 단어의 위치를 달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부정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대화문으로 구성된다.

(9) a. A: Who does John like? Does John like MARY?

B: No, he likes Jane.

b. A: What does John think of Mary? Does John LIKE Mary?

B: No, John hates Mary.

c. A: Who likes Mary? Does JOHN like Mary?

B: No, Peter likes her.

(9)의 예문에서 가부 의문문의 초점 부분은 피치 액센트를 가진다. 모두 4 개 세트의 12 개 대화문을 실험 자료로 하였다(전체 발화 실험 자료는 부록 참조).

20대에서 40대의 미국과 캐나다 출신의 원어민 영어 강사 화자 5 명과 20대의 대학생 한국인 영어 학습자 5 명의 발화를 녹음하였다. 한국인 피험자의 경우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550 점에서 600 점 사이의 영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어민과 한국인 피험자 모두 여성 화자이다. Sony Digital Audio Tape-Corder와 Sony ECM-MS980C microphone을 사용하여 녹취된 자료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itchWorks를 사용해 성조 곡선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억양 분석은 ToBI 억양 표기 규약(Beckman & Ayers 1994)에 근거한다.

2.2 실험 결과

2.2.1 원어민 발화

원어민 화자 5 명이 12 개 대화문을 두 번씩 읽어 모두 120 개 대화문이 녹음되었다. 녹음된 대화문에서 가부 의문문의 초점 단어의 문장 내 위치 차이에 따른 대표적인 원어민 억양 곡선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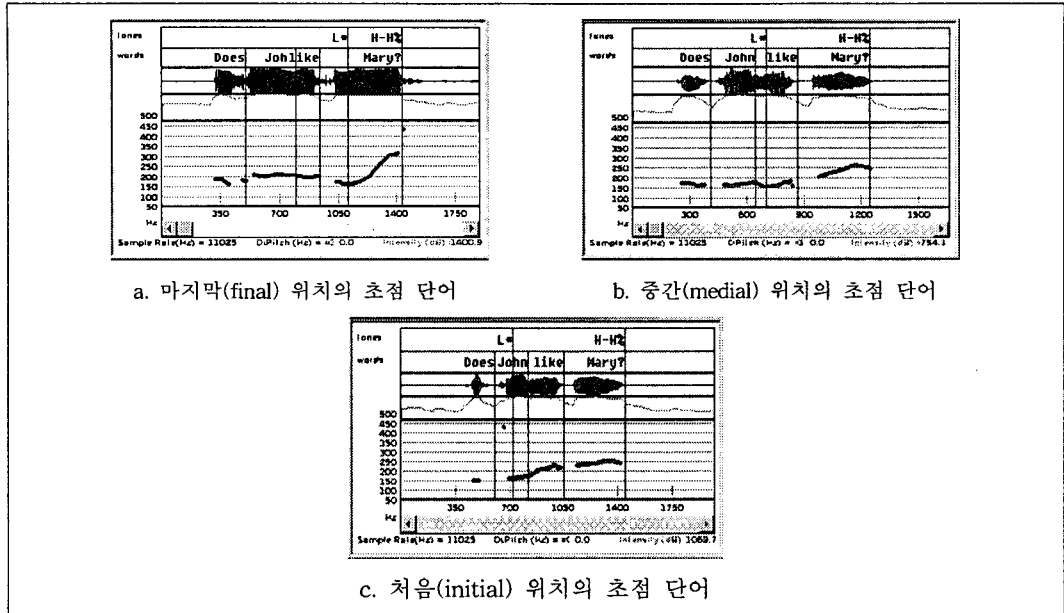


그림 1. 원어민 화자의 초점 단어 위치의 차이에 따른 억양 곡선

영어 원어민 화자의 의문문 초점 발화는 대부분 초점 단어의 강세 음절에 L* 피치 액센트가 나타나고 그 이후는 피치가 상승하여 H-H%의 의문문의 경계 성조를 갖는 적형의 억양을 보여주었다. 원어민 발화 문장을 초점을 받은 단어의 위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억양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원어민 화자의 초점 의문문 억양 유형 분포

초점 단어 위치	억양 유형			빈도	퍼센트
	initial	medial	final		
initial	L*		H-H%	38	95
	L* H-		L* H-H%	2	5
			소계	40	100
medial		L*	H-H%	30	75
	H*	L*	H-H%	6	15
	H* H-	L*	H-H%	2	5
		기타		2	5
			소계	40	100
final			L* H-H%	18	45
	H*		L* H-H%	12	30
	H* H-		L* H-H%	4	10
		기타		6	15
			소계	40	100
합계				120	100

초점 단어에 L*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이후 구 액센트 H-와 경계 성조 H%를 갖는 예측과 동일한 억양유형은 초점 단어가 문장의 첫 부분(initial)에 오는 경우의 빈도가 38, 초점 단어가 문장의 중간(media)에 나타나는 경우의 빈도가 30, 초점 단어가 문장의 마지막(final)에 오는 경우의 빈도가 18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 86 개 발화로 전체 120 개 발화의 72%를 차지한다. 초점 단어에 L*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초점 단어의 앞의 내용어들 중 주어에 H* 피치 액센트가 나타나는 억양 유형은 모두 24 개 발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억양 유형의 빈도 합계는 110으로 전체 120 개 발화의 92%를 차지한다. 즉 원어민 화자의 초점 가부 의문문 발화는 초점 단어가 주어 가 아닌 경우에 앞의 주어에 선택적으로 H*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초점 단어에 L*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며 그 이후의 문장 부분은 피치 액센트의 부여 없이 H-H% 성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의 발화 결과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유형은 피치 액센트가 부여된 단어가 초점 단어가 아니거나 초점 단어 이외의 단어에도 또한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는 등 초점 가부 의문문으로서 부적절한 유형이다.

2.2.2 한국인 발화

한국인 영어 학습자 5 명이 12 개 대화문을 세 번씩 읽어 모두 180 개 대화문이 녹음되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의문문 초점발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억양 유형의 예는 (10)과 같다. (10a)와 같이 초점 단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경우에는 주어에 H*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초점 단어에 L*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H-H%의 성조를 보이는 억양 유형이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 초점 단어가 문장의 중간에 오는 (10b)의 경우에는 초점 단어 앞의 주어에 H*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며 초점 단어에 H* 피치 액센트나 L+H* 피치 액센트가 나타나고 피치가 점차적으로 하강하다가 마지막 내용어에 L*가 나타난 후 피치가 상승하는 억양 유형이 대부분이다. (10c)와 같이 초점 단어가 처음 부분에 오는 경우에는 초점 단어에 H* 피치 액센트나 L+H* 피치 액센트가 나타나고 마지막 단어에 L*가 부여되고 H-H%의 성조를 보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억양 곡선은 그림 2와 같다.

(10) a. Where did Jean go to smoke? Did Jean smoke in the classroom?

H* L* H-H%

b. What did Jean do in the classroom? Did Jean smoke in the classroom?

H* (L+)H* L* H-H%

c. Who smoked in the classroom? Did Jean smoke in the classroom?

(L+)H* L* 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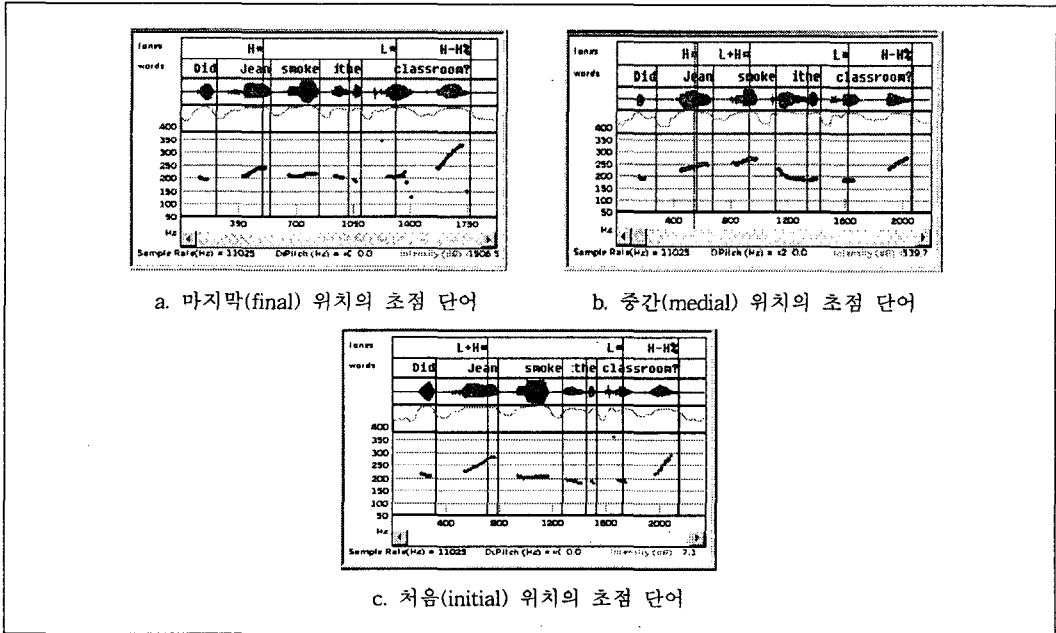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인 화자의 초점 단어 위치의 차이에 따른 억양 곡선

원어민 발화 실험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가부 의문문은 초점 단어에 L*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상승의 경계 성조 H-H%가 뒤따르는 것이 올바른 억양 유형이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는 초점 단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아니면 초점 단어에 L*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는 올바른 억양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화자는 초점과 상관없이 L* 피치 액센트를 의문문의 마지막 단어의 강세 음절인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음절에 H-H% 경계 성조가 급격한 피치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초점 단어는 그 위치가 문장의 마지막이 아닌 경우에 적형의 L* 피치 액센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L+H*나 H* 피치 액센트로 실현된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초점 발화 문장을 초점을 받은 단어의 위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억양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인 화자의 초점 의문문 억양 유형 분포

초점 단어 위치	억양 유형			빈도	퍼센트
	initial	medial	final		
initial	(L+)H*		L* H-H%	30	50
			L* H-H%	11	18
	기타			19	32
			소계	60	100
medial		(L+)H*	L* H-H%	13	22
	H*	(L+)H*	L* H-H%	24	40
			L* H-H%	10	17
	H*		L* H-H%	5	8
	기타			8	13
		소계	60	100	
final			L* H-H%	18	30
	H*		L* H-H%	31	52
	기타			11	18
			소계	60	100
합계				180	100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점 단어에 H* 피치 액센트나 L+H* 피치액센트가 부여되며 주어가 초점이 아닌 경우에 그 주어에 H* 피치액센트가 부여되고 마지막 단어에 L* H-H%의 성조가 실현되는 억양 유형의 빈도가 가장 높아서, 초점 단어가 문장의 처음(initial)인 경우에 50%, 초점 단어가 문장의 중간(medial)에 나타나는 경우에 40%, 초점 단어가 문장의 마지막(final)에 오는 경우에 52%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발화 결과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유형은 피치 액센트가 부여된 단어가 초점 단어가 아니거나, 초점 단어 뒤나 다른 위치에 구 액센트가 부여되거나, 모든 단어에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는 등 한국인 화자의 특징적인 초점 가부 의문문의 억양 유형과는 다른 유형이다.

2.2.3 원어민과 한국인 초점 발화 비교

원어민 화자의 경우 초점 단어에서 L* 피치 액센트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피치의 급격한 상승과 뒤따르는 고 성조의 지속 또는 피치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 단어에 초점이 있는 경우 문장의 선행 내용어들에 선택적으로 H*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의 경우 초점 단어에 H* 피치 액센트나 L+H* 피치 액센트가 나타나고 마지막 내용어에 L*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H-H% 경계성조가 나타나는 억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실험의 실험 문장은 모두 의문문으로 초점의 음운적 표지가 L* 피치 액센트인데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는 초점 단어에 상당히 일관되게 L+H* 피치 액센트나 H* 피치 액센트를 부여한다는 큰 특징이 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화의 또 다른 특징은 초점 단어 이외에도 문장의 첫 내용어인 주어에 H* 피치 액센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점 단어이든지 아니든지 문장 마지막 단어에 L* 피

치 액센트가 나타나고 있다. 즉 실험 결과는 L* H-H%의 성조 곡선이 가부 의문문에서 마지막 단어에 일관되게 사용되는 성조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초점 가부 의문문의 억양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음운적인 차이는 초점 단어에 대해 원어민 화자가 L*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고 한국인 화자는 L+H*나 H* 피치 액센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어민 화자는 초점 단어 이후의 어구가 길어질 때 초점 단어에 L* 피치 액센트를 부여한 후 급격하게 피치가 상승하여 문장의 끝까지 고원의 높은 피치를 유지하는 H- 구 액센트의 억양 실현을 보이지만 한국인의 초점 의문문의 억양에는 이러한 고원의 H- 구 성조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 액센트 실현에서의 차이는 Ueyama & Jun(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이다. 한국인 발화에서는 초점 단어가 L* 피치 액센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L+H*나 H*로 실현되어 그 피치 정점 이후에 오히려 피치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의문문의 성조인 상승 성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지막 단어에 다시 L* 피치 액센트가 규칙적으로 부여되고 마지막 음절에서 H- 구 액센트와 H% 경계 성조가 실현되는 원어민의 억양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억양 실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어민과 한국인의 억양에서 두드러진 음성적인 차이는 L* 피치 액센트의 기본 주파수 값의 차이이다. 원어민 화자의 L* 피치 액센트는 140에서 170 Hz 정도의 낮은 기본 주파수 값을 가지는데 한국인 화자의 저 성조는 190 Hz 전후의 비교적 높은 기본 주파수 값을 보인다. 그러나 뒤의 지각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어민은 한국인 화자의 발화 문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L* 피치 액센트를 초점으로 지각하는 빈도가 높다. 이는 영어 초점 의문문에서 기본 주파수의 값과는 상관없이 초점 단어를 표시하는데 저 성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3. 지각 실험

발화 실험은 한국인 화자가 가부 의문문의 초점을 올바른 억양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합당하지 못한 억양의 구현이 그 질문을 듣는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한국인 화자의 질문을 듣고 그 의도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어민을 대상으로 지각 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원어민 화자의 가부 의문문의 초점을 한국인 화자가 잘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각 실험을 하였다.

3.1 실험 방법

미국과 캐나다 출신의 영어 강사 원어민 6 명을 피험자로 하여 남자 3 명과 여자 3 명으로 모두 6 명의 30 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원어민 피험자에게 한국인 화자의 의문문 발화를 들려주고 그 억양에 근거해 합당한 부정의 대답을 주어진 질문지의 보기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발화 실험에서 한국인 화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 억양 유형인 그림 2의 억양 유형을 가진 발화 문장들을 들려주었다. 지각 실험 자료의 예는 다음 (11)과 같다(전체 지각 실험 자료는 부록 참조).

(11) Does John like Mary?

a. No, he likes Jane.

b. No, John hates Mary.

c. No, Peter likes her

한편, 영어 원어민 화자의 의문문 발화에서의 초점을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지각하고 그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지각 실험을 한국인 학습자에게 실시하였다. 그림 1에서 제시된 원어민의 발화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억양 유형의 발화들을 실험 자료로 하였다. 영어 원어민 화자의 합당한 억양 유형으로 발화된 질문을 듣고 한국인 화자들이 알맞은 응답을 질문지에서 고르는 것이었다. 대학생 159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토익 점수 350에서 650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었다. 피험자 학생들이 의문문의 초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이 주어졌으며 각 질문지의 듣게 될 의문문과 선택하도록 제시된 대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 실험 전에 질문지를 읽어보는 시간이 주어졌다.

3.2 실험 결과

3.2.1 원어민

원어민 지각 실험의 결과는 원어민이 한국인이 발화한 영어 초점 의문문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한국인의 발화를 자료로 원어민을 대상으로 지각 실험을 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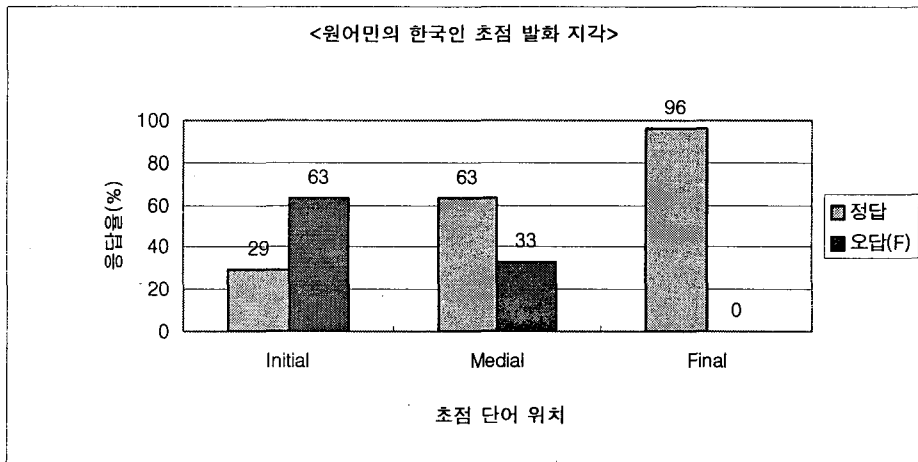


그림 3. 원어민의 한국인 초점 발화 지각

6 명의 원어민 화자가 각각 12 개 문장을 듣고 답하였으므로 모두 72 개의 자료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초점 단어의 위치와 관련해서 세 개 유형의 발화 문장이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24 개 자료가 검토되었다. 초점 단어가 문장의 마지막 위치에 올 때는 그림 3과 같이 96%의 정답률을 보였다. 24 개 중 정답이 23 개였다. 초점 단어가 문장의 중간(M)에 올 때는 24 개 중 정답이 15 개로 63%

의 정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초점 단어가 문장의 처음(I)에 올 때는 24 개 중 정답이 7 개로 29%의 정답률을 보였다. 초점 단어가 문장의 마지막 위치에 올 때 초점 단어를 올바르게 지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영어 화자의 억양에서 나타난 특징이 문장 마지막 단어에 L*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원어민 화자의 지각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반영되어 원어민들은 의문문의 초점이 대부분 마지막 단어에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점 단어가 문장의 중간에 있는 발화를 듣고 초점 단어가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잘못 답한 예가 전체의 33%를 차지하며, 초점 단어가 문장의 처음에 있는 발화를 듣고 초점 단어가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잘못 답한 예는 전체의 63%를 차지하여 정답률 29%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인 영어 화자가 의문문의 초점 단어를 L+H* 피치 액센트로 상당히 높은 피치로 발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어민 화자는 그 L+H* 피치 액센트가 부여된 단어와 규칙적으로 L* 피치 액센트가 부여된 문장의 마지막 단어 사이에서 초점 단어 판단에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준다.

3.2.2 한국인

한국인이 원어민이 발화한 의문문의 초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응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각 실험을 하였다.³⁾ 159 명의 한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12 개 발화 문장을 들려주었으므로 모두 1908(159×12) 개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초점 위치의 차이에 따른 3 개 유형의 각 유형별로 636(1908÷3) 개가 분석되었다.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인 지각 실험 결과

초점 단어 위치	응답 빈도 및 백분율				합계
	Initial	Medial	Final	Miswriting	
Initial	298(47%)	209(33%)	91(13%)	38(6%)	636(100%)
Medial	166(26%)	159(25%)	278(44%)	33(5%)	636(100%)
Final	120(19%)	91(14%)	402(63%)	23(4%)	636(100%)
합계	584(31%)	459(24%)	771(40%)	94(5%)	1908

표 3의 지각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초점 단어가 문장의 처음(I)에 오는 경우에는 옳게 답한 예가 298 개로 47%의 정답률을 보인다(표 3에서 초점 단어 위치별 정답의 빈도와 백분율은 진한 글자체로 표시됨). 초점 단어가 문장의 중간(M)에 오는 경우에 옳게 답한 예는 159 개로 25%이며 초점 단어가 문장의 마지막(F)에 오는 경우에 정답을 옳게 선택한 예는 402 개로 정답률이 63%이다. Miswriting은 두 개의 정답을 표기하였거나 정답을 표기하지 않는 등 잘못 응답한 예이다. 실험 결과를 도표로 나타낸 것은 그림 4이다.

3) 원어민 화자의 발화를 원어민 화자 2 명에게 들려주어 올바르게 초점 단어를 지각하는지 확인하였다. 한 명은 모두 올바르게 답하였고 다른 한명은 초점 단어가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 정답을 찾는데 약간의 혼란을 겪었으나 그 외의 위치에 초점 단어가 위치 할 때는 의문문의 초점 단어를 올바르게 지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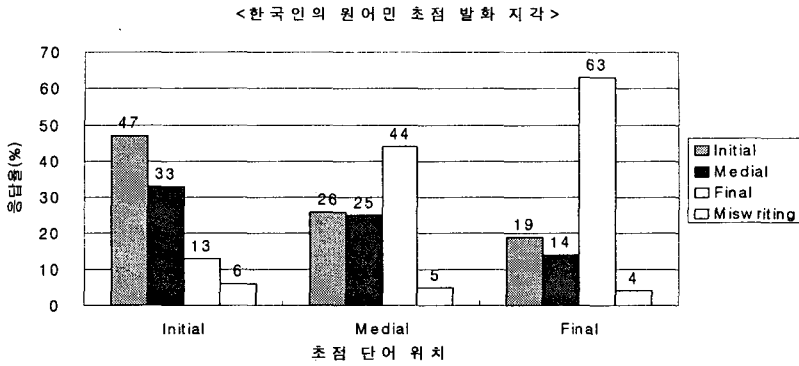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인의 원어민 초점 발화 지각

초점 단어가 중간에 올 때의 정답률이 특히 낮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 한국인 화자는 초점 단어가 마지막에 오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예가 278 개로 44%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리고 초점 단어가 처음에 오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예는 26%이다. 즉 초점 단어가 중간에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나 마지막 단어가 초점으로 인식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점 단어가 처음에 올 때는 초점 단어가 중간에 오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예가 209 개로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초점 단어가 마지막에 오는 것으로 잘못 선택한 예도 13%에 이른다. 표 4는 초점 단어의 위치에 따른 각 유형별 정답과 오답의 빈도 표이며, 표 5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각 초점 단어 위치 유형 간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정하기 위해 Z 통계량을 구하여 비율 차이 검정을 한 결과이다.

표 4. 초점 단어 위치 관련 응답 빈도 표

	초점 단어 위치 관련 응답 빈도		
	Initial	Medial	Final
오답(0)	338	477	234
정답(1)	298	159	402
합계	636	636	636

표 5. 초점 단어 위치 차이에 의한 실험 문장의 집단 간 비율 차이 검정

A. -Proportions of-					
	Value	final	initial	Z	Prob>Z
1	0.6321	0.4686		5.86	<.0001
B. -Proportions of-					
	Value	final	medial	Z	Prob>Z
1	0.6321	0.2500		13.72	<.0001
C. -Proportions of-					
	Value	medial	initial	Z	Prob>Z
1	0.2500	0.4686		-8.12	<.0001

표 5의 비율 검정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A의 초점 단어가 마지막인 유형과 초점 단어가 처음인 유형간의 비교에서 Z통계량 값이 5.86이고 그에 대한 유의확율이 0.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초점 단어가 처음에 올 때에 비해 초점 단어가 마지막에 올 때 옮겨 지각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5의 B에서 초점 단어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와 중간에 오는 경우의 비교, 그리고 표 5의 C의 초점 단어가 중간에 오는 경우와 처음에 오는 경우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과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화자는 초점 단어가 문장의 중간에 올 때 보다 문장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올 때 그 초점 단어에 부여된 L* 피치 액센트를 더 잘 지각하며 처음에 초점 단어가 올 때 보다 마지막에 초점 단어가 올 때 그 단어에 부여된 L* 피치 액센트를 더 잘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과 그림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한국인에 대한 지각 실험의 결과는 초점 단어가 중간에 있는 실험문의 예에서 현저하게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실험에서는 초점 단어가 중간에 있는 경우의 각 응답의 세 가지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율 차이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관련 빈도 표와 통계 결과는 표 6과 표 7이다.

표 6. 초점 단어가 Medial인 경우의 응답 빈도 표4)

	Medial 초점 단어에 대한 응답 빈도		
	Initial	Medial	Final
기타 응답(0)	437	444	325
해당 응답(1)	166	159	278
합계	603	603	603

표 7. 초점 단어가 Medial인 경우의 응답 집단 간 비율 차이 검정

A. -Proportions of-					
value	final	initial	Z	Prob>Z	
1	0.4610	0.2753	6.69	<.0001	
B. -Proportions of-					
value	medial	initial	Z	Prob>Z	
1	0.2637	0.2753	-0.45	<.6496	
C. -Proportions of-					
value	medial	final	Z	Prob>Z	
1	0.2637	0.4610	-7.13	<.0001	

초점 단어가 중간인 경우에 표 7의 B와 같이 초점 단어가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초점 단어가

4) 각 유형별 합계가 636이 아니라 603인 이유는 답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Miswriting의 예 33 개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 7의 A나 C와 같이 초점 단어가 마지막이라고 한 경우에 대하여 초점 단어가 중간이나 처음이라고 한 경우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초점 단어가 중간에 있는 실험문에 대해 초점 단어가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응답한 빈도는 다른 응답의 빈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들려준 원어민 화자의 발화 중에서 초점 단어가 문장 중간에 오는 예의 억양은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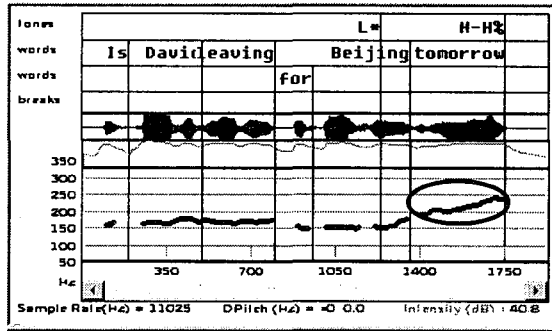


그림 5. 초점 단어가 중간인 원어민 성조 곡선

이렇게 초점 단어가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에 초점 단어가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초점 의문문에서의 초점 단어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H-H%와 관련된 높은 기본 주파수나 기본 주파수의 상승(그림 5의 표시 부분)에 반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마지막 단어가 초점인 경우의 정답률이 높다는 것은 또한 한국인 화자가 마지막 단어가 초점인 경우에 초점 단어에 L*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는 올바른 억양을 발화하는 빈도가 높다는 한국인 발화 실험의 결과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 능력에 따라 지각 실험의 결과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집단 비교하였다. 지각 실험 피험자 중 토익 점수가 없는 학생을 제외하고 토익 점수 350 이상 450 미만인 피험자 93 명과 450 이상 650 이하인 피험자 41 명으로 구분하였다. 모두 134(93+41) 명의 피험자에게 12 개 발화 문장을 실험 자료로 지각 실험을 하였으므로 통계 대상 자료는 모두 1608(134×12) 개이다. 실험 집단 간 정답과 오답의 교차표는 표 8과 같다. 그리고 표 9는 집단 간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한 결과이다.

표 8. 영어 능력 차이에 의한 집단 정답률 교차표

영어 능력	정·오답 빈도(%)		
	오답(0)	정답(1)	합계
토익 450 미만 (Group A)	606(54.30%)	510(45.70%)	1116(100.00%)
토익 450 이상 (Group B)	272(55.28%)	220(44.72%)	492(100.00%)
합계	878(54.60%)	730(45.40%)	1608(100.00%)

표 9. 영어 능력 차이에 의한 집단 간 정답 비율 차이 검정

Value	-Proportions of-		Z	Prob>Z
	Group A	Group B		
1	0.4570	0.4472	0.13918	0.44465

표 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영어 능력에 따른 두 집단은 유의수준 0.05에서 정답률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아니다. 즉 가부 의문문의 초점 지각의 정확성은 토익 점수와 관련된 영어 능력과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⁵⁾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질문과 대답의 담화를 자료로 L* 피치 액센트로 실현되는 가부 의문문의 초점을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화와 이해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영어 원어민 발화 시험, 한국인 영어 학습자 발화 시험, 한국인 발화에 대한 원어민의 지각 시험, 원어민 발화에 대한 한국인의 지각 시험의 네가지 시험이 실시되었다.

영어 원어민의 경우에는 의문문의 초점 발화에 있어서 적형의 억양 유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어민 초점 발화의 지각에 있어서도 바른 이해를 보인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초점 의문문을 올바른 억양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초점 단어에 잘못된 피치 액센트인 L+H* 피치 액센트나 H*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발화 시험에서 얻은 자료로 원어민의 한국인 영어 발화의 이해를 시험한 결과 원어민은 한국인의 발화를 듣고 그 초점의 지각하는데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원어민의 의문문의 초점을 이해하는지 지각 시험을 한 결과 한국인도 또한 원어민이 발화한 적형의 억양을 갖는 가부 의문문의 초점을 인식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험 연구를 통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의문문의 초점을 적합한 억양으로 잘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과 한국인의 억양에 근거한 초점 지각의 방식은 원어민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는 데, 이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원어민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가부 의문문 초점 발화와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원어민과의 대화 상황에서 담화 일관성을 여기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편,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초점 발화와 지각에 작용하는 음 높이와 음 길이 등 음성학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초점 단어의 위치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각각과 관련해서도 두 집단을 비교하였으나 영어 능력 별 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토익 점수 500을 기준으로 하여 500 이상과 500 미만의 피험자를 비교한 통계 결과도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김미란. 2000. *한국어 억양에 나타난 초점과 문미 억양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선아, 오미라. 1996. "A Prosodic analysis of three types of wh-phrases in Korean." *Language and Speech* 39(1), 37-61.
- 최재웅, 이민행. 1999. "초점."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한신문화사.
- 최재웅, 전윤실, 장윤, 박순복, 김기호. 1999. "한국어 특수조사 '-만'에 연계된 초점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음성과학* 5(2), 77-91.
- Beckman, M. E. & Ayers, G. M. 1994. *Guidelines for ToBI labelling: ver 2.0*. Manuscript. Ohio State University.
- Chomsky, N. 1971.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D. Steinberg and L. Jakobovits, ed., *Semantics: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3-216.
- Kiefer, F. 1980. "Yes-no questions as wh-questions." In J. R. Searle, F. Kiefer, and M. Bierwisch, ed.,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s*, D. Reidel Publishing Company, 97-119.
- Rooth, M. 1996. "Focus." In Shalom Lappin ed.,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s*, Blackwell, 271-97.
- Ueyama, M. & Jun, S-A. 1998. "Focus realization in Japanese English and Korean English Intonation." In *Japanese and Korean Linguistics* 7, CSLI. Cambridge Univ. Press, 629-645.

접수일자: 2004. 07. 30

게재결정: 2004. 08. 31

▲ 전윤실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17 (우: 402-749)

인천대학교 어학원

Tel: +82-32-770-8023

E-mail: ahnjuny@hanmail.net

▲ 오세풍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2612-9298

E-mail: oseyu@korea.ac.kr

▲ 김기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430

E-mail: keehokim@korea.ac.kr

부 록

A. 발화 실험 자료

1. a. A: Who does John like? Does John like Mary?
B: No, he likes Jane.
- b. A: What does John think of Mary? Does John like Mary?
B: No, John hates Mary.
- c. A: Who likes Mary? Does John like Mary?
B: No, Peter likes her.

2. a. A: When is David leaving for Beijing? Is David leaving for Beijing tomorrow?
B: No, he's leaving today.
- b. A: Where is David leaving for tomorrow? Is David leaving for Beijing tomorrow?
B: No, he's leaving for Tokyo.
- c. A: Who is leaving for Beijing tomorrow? Is David leaving for Beijing tomorrow?
B: No, Mary is.

3. a. A: Whom did Emily loan her roller-blades to?
 Did Emily loan her roller-blades to Robin?
B: No, she loaned her roller-blades to Joel.
- b. A: What did Emily loan Robin? Did Emily loan her roller-blades to Robin?
B: No, she loaned her bike to Robin.
- c. A: Who loaned the roller-blades to Robin?
 Did Emily loan her roller-blades to Robin?
B: No, Susan loaned her roller-blades to Robin.

4. a. A: Where did Jean go to smoke? Did Jean smoke in the classroom?
B: No, she smoked in the rest room.
- b. A: What did Jean do in the classroom? Did Jean smoke in the classroom?
B: No, she drank in the classroom.
- c. A: Who smoked in the classroom? Did Jean smoke in the classroom?
B: No, Julia smoked in the classroom.

B. 지각 실험 자료

1. a. Does John like MARY?
 1) No, he likes Jane.
 2) No, John hates Mary.
 3) No, Peter likes her.
- b. Does John LIKE Mary?
 1) No, he likes Jane.
 2) No, John hates Mary.
 3) No, Peter likes her.

- c. Does JOHN like Mary?
- 1) No, he likes Jane.
 - 2) No, John hates Mary.
 - 3) No, Peter likes her.
2. a. Is David leaving for Beijing TOMORROW?
- 1) No, he's leaving today.
 - 2) No, he's leaving for Tokyo.
 - 3) No, Mary is.
- b. Is David leaving for BEIJING tomorrow?
- 1) No, he's leaving today.
 - 2) No, he's leaving for Tokyo.
 - 3) No, Mary is.
- c. Is DAVID leaving for Beijing tomorrow?
- 1) No, he's leaving today.
 - 2) No, he's leaving for Tokyo.
 - 3) No, Mary is.
3. a. Did Emily loan her roller blades to ROBIN?
- 1) No, she loaned her roller blades to Joel.
 - 2) No, she loaned her bike to Robin.
 - 3) No, Susan loaned her roller blades to Robin.
- b. Did Emily loan her ROLLER BLADES to Robin?
- 1) No, she loaned her roller blades to Joel.
 - 2) No, she loaned her bike to Robin.
 - 3) No, Susan loaned her roller blades to Robin.
- c. Did EMILY loan her roller blades to Robin?
- 1) No, she loaned her roller blades to Joel.
 - 2) No, she loaned her bike to Robin.
 - 3) No, Susan loaned her roller blades to Robin.
4. a. Did Jean smoke in the CLASSROOM?
- 1) No, she smoked in the rest room.
 - 2) No, she drank in the classroom.
 - 3) No, Julia smoked in the classroom.
- b. Did Jean SMOKE in the classroom?
- 1) No, she smoked in the rest room.
 - 2) No, she drank in the classroom.
 - 3) No, Julia smoked in the classroom.
- c. Did JEAN smoke in the classroom?
- 1) No, she smoked in the rest room.
 - 2) No, she drank in the classroom.
 - 3) No, Julia smoked in the classroom.